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백 정 숙¹⁾

김 현 진²⁾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60대 성인 151명(남: 44명, 여: 107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관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었다. 즉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진로적응성도 낮아지는데 이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진로적응성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을 증진하기 위한 장·단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지지,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조절된 매개효과

* 본 논문은 백정숙의 석사학위논문(2020년)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E-mail: hjinkim71@gmail.com)

I. 서 론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평생직장이나 지속가능한 직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급변하는 진로와 직업 환경에 자신이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적응의 문제를 제기한다. 통일부(2019. 12)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8년에 947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년에는 연간 1,41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증가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3만 3천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초기 정착 기간인 5년 동안 정착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남북하나재단(2020. 02)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국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 고용률은 3.2% 낮고, 비경제활동비율은 1.2%, 실업률은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진로 및 직장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진로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들의 진로장벽이나 직장적응 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다(신호명, 2019; 안서영, 2018). 이와 더불어 최근 진로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술이나 직업에 고착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며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

는 능력인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현대사회의 직업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진될 필요가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진로적응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환경 변인으로 보고해 왔다. 개인에게 다양하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며,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직업 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은규, 이서정, 2018; 백정기, 이제경, 2019; Hirschi, 2009). 이런 관점에서 가족 등 기존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떠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그들의 진로적응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사회 환경적 요인은 진로와 관련된 개인 내적 동기인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을 증진시킴으로써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강민채, 2014; 유수복, 2013). 안정적인 지원 체계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움으로써 결국 자신이 각종 진로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적 신념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진로 발달의 과정에서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원과 도전, 성취의 경험들이 개인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시킨다고 본 진로의 사회인지이론 모형(Lent, Brown, & Hackett, 1994)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진로 선택과 준비에 관한 자신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높은 신념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높아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순희, 손은령, 2013). 실제로 일부 진로적응성 연구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한 바 있으며 그 설명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정기, 이세경, 2019; 신수정, 이인희, 2018; Guan et al., 2015).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은 주로 재취업 여성이나 대학생에 국한되어 검증되었기 때문에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중경, 양영희,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어려움, 열등감, 차별감, 지지의 부족, 적대감, 향수병 등으로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불안, 위축, 소외감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Sandhu & Asrabadi, 1994). 직장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사회의 문화적 산물과 특성을 공

유하며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내포하는 직장문화에 대한 부적응은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이나 국내 이주민이 그들의 진로결정성이나 진로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성윤희, 장은영, 2020; 어은치 맥, 2018).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질 문화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이 직업문화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인수, 손민정, 최정은, 2020).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그들이 새로운 직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동시에 진로를 탐색하고 직장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진로 영역에서의 매개효과가 그들이 현재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까지 높게 느낀다면 진로적응성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과 이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있지만 진로와 관련된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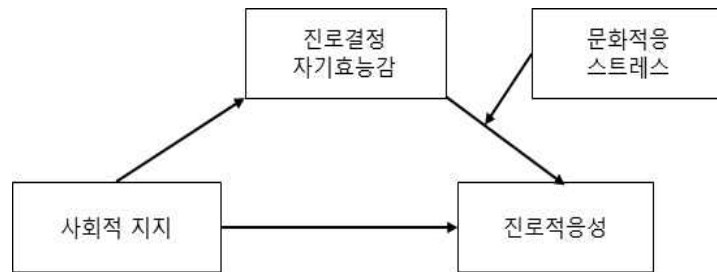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서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이 매개효과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2. 북한이탈주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절하는가?
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적응성의 개념을 진로 장면에

도입하여 설명한 것으로 Super와 Kinsel(1981)은 전 생애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로의 적응과 이를 위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을 발달시킨 Savickas(1997)는 진로적응성을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성 뿐만 아니라 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보았다. Savickas(2005)는 진로적응성을 관심(concern), 통제(control), 자신감(confidence), 호기심(curiosity)의 네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진로 관심은 “나에게 미래가 있는가,” 둘째, 통제는 “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셋째, 호기심은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넷째,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을까”로 진로적응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포부를 추구함에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계급사회의 제한성으로 인해 “평생직장”이 당연시되고, 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등 진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직업적응훈련’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취업보호제도를 통해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고용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들이 실시되어왔다. 그럼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을 하여도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한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박성재, 2012).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적성보다 방송매체에서 등장하는 직업군을 선호하는 등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업문화충돌에 따른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신호명, 2019; 조인수 등, 2020).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신뢰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수용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도록 돕는 평가적 지지,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정보적 지지,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욕구 충족을 돕는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Noltén(1994)은 개인이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사회적인 행위나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기능

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강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적응을 돕는 기반으로 개인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 관련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박은규와 이서정(2018)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회 환경 변인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개인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과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하며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신감이 변화하는 진로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력단절 기혼여성(신갑숙, 2012)이나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지은, 2013)에서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진로적응성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북한에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제공될 때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근거로 진로발달이론을 접목하여 개념화되었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선택 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성으

로 보고, 진로미결정 상태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etz와 Hackett(1986)는 특정 진로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성취와 지속성 및 이후 진로선택과 진로관련 행동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이 된다고 보았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할 때 제기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주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예측이 불가능한 진로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해나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이나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운경, 2019; 윤준현, 최지영, 2020).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자기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효능기대가 높을수록 관련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복잡한 진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준비와 적응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동기화시킨다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민채, 2014;

이순희, 손은령, 2013). 한편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는 주로 진로준비 행동이나 진로장벽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들이었다(안서영, 2018). 따라서 이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Ward, Bochner와 Furnham(2001)은 문화적응을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이민자나 유학생,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그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류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동화하고 수용해야하는 압력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심리적 어려움과 역기능적 반응들을 유발하기도 한다(Berry & Annis, 1974). 실제 일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진로와 직업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아라와 이혜경(2020)은 중국내 한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 스트레스와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성윤희와 장은영(2020)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어은치맥(2018)은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과 관련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등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문화에서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인수 등, 2020). 위의 연구로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직업 환경에서의 진로적응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모형

앞서 언급한 결과들을 통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라는 사회 환경적 기반은 자신의 진로결정과 준비에 대한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개인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주도성이 높아지고 불확실한 직업세계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강민채, 2014; 백정기, 이제경, 2019; 신수정, 이인희, 2018; Guan et al., 2015). 이에 따라 이 매개효과 모형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진로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적응과 그 사회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직장문화에 대한 적응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장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인다(성윤희, 장은영, 2020; 전해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다문화 집단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 적응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김종경, 양영희, 2011; 이민지 등, 2016). 따라서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진로 영역에서의 매개효과가 그들이 현재 문화 적응 과정에서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동시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까지 높아진다면 그들의 진로적응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조절함으로써 진로적응성 수준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북한이탈주민 2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오프 및 온라인 설문 방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3개 지역에 거주하는 15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90부를 수거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설문 링크를 첨부하여 70명에게 발송하였다. 수거한 오프라인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와 온라인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총 151명의 설문결과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07명(70.9%)이었고 남성이 44명(29.1%)이었다. 연령은 20대가 43명(28.5%), 30대가 39명(25.8%), 40대가 28명(18.5%), 50대가 31명(20.5%), 60대가 10명(6.6%)이었다. 남한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은 5명(3.3%), 1~3년은 10명(6.6%), 3~5년은 12명(7.9%), 5년 이상은 124명(82.1%)으로 전체의 82% 이상이 5년 이상 거주자였다. 북한 최종 학력은 인민학교 졸업 이하가 31명(20.5%), 중학교 졸업은 89명(58.9%), 전문대 졸업은 21명(13.9%), 대학교 졸업 이상은 10명(6.6%)으로 북한 학제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유형에서 취업(정규직)은 60명(39.7%), 미취업은 33명(21.9%), 취업(계약직)은 20명(13.2%), 자영업은 16명(10.6%), 프리랜서(자유계약직)는 11명(7.3%), 시간제(아르바이트)는 11명(7.3%)이었다.

2.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척도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기초로 양현주(1991)가 수정 보완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하위척도는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1이었다.

진로적응성 척도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하고 Tak(2012)이 번안한 후 정지은(2013)이 재수정한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을 포함한다. 전체 문항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Betz, Klein과 Taylor(1996)의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전연숙(2010)이 북한이탈주민에 맞게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의 요인의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6)이 변안한 ‘문화이입 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이소래(1997)가 수정 보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두려움,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의사소통 문제, 불신) 등 7가지 하위 영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전체 문항의 평균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먼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순서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단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Model 14를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60, p < .01$) 및 진로적응성($r = .62,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r = -.68, p < .01$)을 보였다.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r = -.45, p < .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적응성($r = .80,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r = -.52,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사이에서 진로결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151

	1	2	3	4
1. 사회적 지지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0**	-		
3. 문화적응 스트레스	-.68**	-.45**	-	
4. 진로적응성	.62**	.80**	-.52**	-
평균	3.44	3.77	2.60	4.03
표준편차	.52	.78	.60	.76

* $p < .05$. ** $p < .01$.

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model 4)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beta = .90, p < .01$), 이때 진로적응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설명량은 38.3%이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89, p < .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사회적 지지($\beta = .32, p < .01$)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beta = .65, p < .01$) 모두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설명량은 66.9%로 매개변수의 추가로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수는 .58이었으며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표 3과 같이 95%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²	F
1	사회적지지	진로적응성	.90	.09	.62	9.62**	.38	92.50**
2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9	.10	.60	9.18**	.36	84.23**
3	사회적지지	진로적응성	.32	.09	.22	3.67**	.67	149.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5	.06	.67	11.30**		

* $p < .05$. ** $p < .01$.

표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의 bootstrapping 결과

경로	매개효과 계수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적응성	.58	.10	.41	.79

* $p < .05$. ** $p < .0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beta = .72, p < .01$), 조절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32, p < .01$).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적응성을 정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조절효과를 보였고($\beta = .33, p < .01$),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R^2 의 증가분도 유의미하였다($R^2 = .03, p < .01$).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의 개별적 영향 외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짐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이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절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건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단순 회귀선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값의 $-.597(M-1SD)$ 부터 $.597(M+1SD)$ 의 범위에서 상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변수들	β	S.E.	t	p	LLCI*	ULCI**
상수	4.10	.04	107.40	.000	4.03	4.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72	.05	14.49	.000	.62	.82
문화적응 스트레스	-.32	.07	-4.83	.000	-.45	-.1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x 문화적응 스트레스	.33	.09	3.86	.000	.16	.49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R^2 증가	R^2 .03		F 14.93	p .000		

* L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문화적응 스트레스	Effect	S.E.	t	p	LLCI*	ULCI**
M-1SD(-.5970)	.53	.07	8.12	.000	.40	.66
M평균(.0000)	.72	.05	14.49	.000	.62	.82
M+1SD(.5970)	.92	.08	11.98	.000	.77	1.07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낮아지는데 이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을 더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고집단(M+1SD)은 저집단(M-1SD)보다 현저히 진로적응성이 낮아졌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데 이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낮을 때보다 진로적응성이 현저히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에게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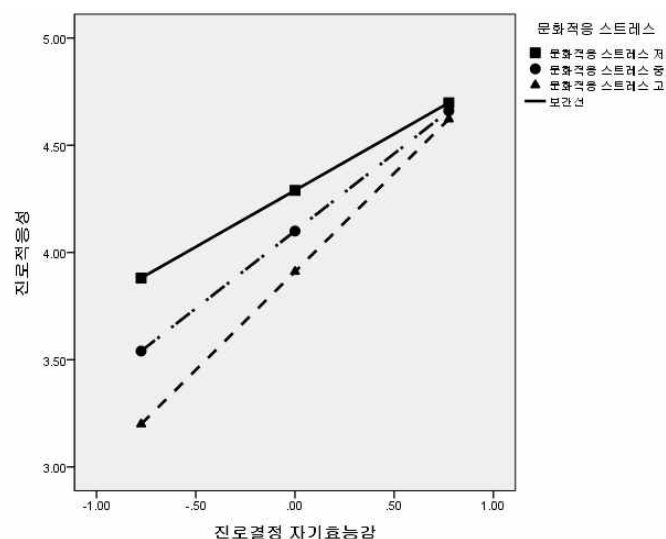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그래프

준도 낮출 때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그림 3과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 = .89,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쳐($\beta = .68,$

$p < .01$)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때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졌다($\beta = .15, p = .14$). 한편 조절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적응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적응성을 예측함으로써($\beta = .31, p < .01$)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상호작용항의 추가에 따른 R^2 변화량 또한 .03($p < .01$)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적응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수	β	<i>S.E.</i>	<i>t</i>	<i>p</i>
종속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수	-3.08	.34	-9.08	.000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9	.10	9.18	.000
종속변수: 진로적응성				
상수	3.58	.35	10.26	.000
사회적 지지 → 진로적응성	.150	.10	1.49	.1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적응성	.68	.06	12.24	.000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진로적응성	-.25	.08	-3.07	.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x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진로적응성	.31	.09	3.71	.000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R^2	<i>F</i>	<i>p</i>	
	.03	13.79	.000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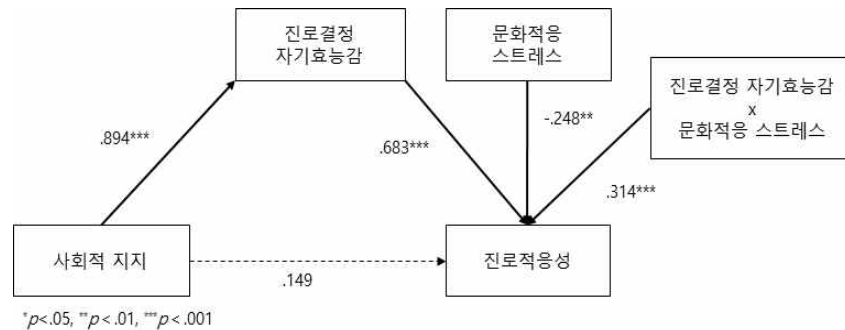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적응성)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값이 $M-1SD$ 부터 $M+1SD$ 로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모든 범위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28 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103, .485)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진로적응성을 증가시키는데, 증가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진로적응성이 높아는데 여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까지 동시에 낮을수록 진로적응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낮아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와 이 매개효과가 그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효과 모형은 대학생 및 재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백정기, 이제경, 2019; 신수정, 이인희, 2018; Guan et al., 2015). 따라서 이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지원과 적절한 안내를 제공받을수록 더 안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되고 이 경험들이 진로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념은 변화하는 남한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 요소와 이를 기반으로 증진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내적 동기가 결과적으로 여러 직업적 도전 상황 속에서 적응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정보적 지지의 외적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주도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 영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도 낮아지는데 이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까지 높으면 스트레스가 낮을 때보다 진로적응성이 급격히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적응성 증진을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성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 영향은 이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김나래, 2013; 이순희, 손은령,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여러 이주민 집단의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성윤희, 장은영, 2020; 어은치맥, 2018).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을 밝힌 연구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진로적응성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적 효과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장·단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 전략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진로적응성을 높이는데, 이 매개효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면 진로적응성이 낮아지는데 여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높아지면 진로적응성은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사회적 지지체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낮아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긍정적 효과가 증진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서 익혔던 직업이나 기술에서 고착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직업 환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들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과 그 변인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타인의 지지와 격려, 주변인들의 취업 및 직업 성공 사례, 진로 정보, 새로운 진로의 도전과 성취의 경험 등의 사회적 지지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신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지속적으로 적응해나가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소수자인 그들의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초기 보호기간 내에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리 및 진로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지역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은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가 제공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원의 정착교육이나 지역하나센터에서 진

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로적응성 증진에 초점을 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보다 실제적인 직업별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남한 사회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목표선택과 구체적인 계획, 문제를 해결해보는 진로코칭을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주체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진로적응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82% 이상이 남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임에도 여전히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초기 정착의 이슈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살펴볼 요소임으로 시사한다.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적응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진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직장 내외에서 남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 규범,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적 어려움, 차별감, 향수병 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중 정착 초기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이 일하는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적응성 증진을 위한 위와 같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북한이탈주민 중 단지 151명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국의 성인 남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거주기간을 대표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연구대상자의 약 71%가 여성으로 본 연구 결과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거주기간의 대상을 표집한 것에 비해 연구대상자가 그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남녀 북한이탈주민을 균등하게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는 모형이 검증되었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른 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 또한 필요해 보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초로 추후 관련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청소년, 청년, 노인 등의 연령대별, 거주기간별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적응성 증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강민채 (2014). 경력단절 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래 (2013). 대학생의 내적 통제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경, 양영희 (201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기전. *성인간호학회지*, 23(1), 50-59.
- 남북하나재단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박성재 (201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노동리뷰*, 91, 91-109.
- 박은규, 이서정 (2018). 대학생 진로적응성 관련 영향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8(3), 35-56.
- 백정기, 이제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2(2), 79-98.
- 신수정, 이인희 (2018). 재취업여성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8), 422-432.
-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연구, 33(1), 43-64.
- 신갑숙 (2012).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신호명 (2019). 탈북 남성의 직장적응과 문화갈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서영 (2018).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주 (1991). 지체장애자의 사회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치맥 (2018).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윤경 (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6(4), 49-68.
-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준현, 최지영 (2020).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효과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119-139.
-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59-481.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아라, 이해경 (2020).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1(1), 96-106.
- 이은진 (2001). 다재다능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연숙 (201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척도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259-290.
- 정지은 (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수, 손민정, 최정은 (2020). 북한이탈주민

- 의 직업문화충돌과 직업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354-372.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382-406.
- Betz, N. E., & Hackett, G. (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Guan, P., Capezio, A., Restubog, S. L. D., Read, S., Lajom, J. A. L., & Li, M. (2016). The role of traditional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4-12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 *Psychological Report*, 75, 435-448.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avickas, M. L., & Porfeil, E. J. (2012). The Career

-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0, 661-673.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9, 194-201.
- Tak, J. 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712-71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Routledge.
- 1 차원고접수 : 2020. 10. 10.
수정원고접수 : 2020. 12. 1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ek, Jeongsuk

Kim, Hyunji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is en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ulturation stress,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measur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s. To do this, 151 North Korean defectors (male: 44, female: 107) in their 20s through their 60s who live in Korea participate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were assessed using the PROCESS macro through SPS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and career adaptability. Second,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controlled by acculturation 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policy support plan that improves the career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oth long-term and short-term perspectives.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ulturation stress, moderated mediation effect